

# 비상진료대책 연장...“의사들 합리적 통일안 제시해야”

### 정부, 건보 재정 1882억원 추가 투입...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환자 생명 보호하면서 합리적 방식 의사 전달 땀 열린 마음 논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정부가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해 응급진료 체계를 지원·유지한다.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한 달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의료행위에는 150% 가산해 보상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준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안에 중증·응급수술을 하면 처치·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 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입원환자당 하루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외에 예비비를 통해 의료진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며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추가로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협박 같은 위협 사례는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하고 있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당정이 협의 중인 가운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800명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2차 사전 통지가 발송됐고, 향후 3차 발송에도 전공의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고(공시송달)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당과 유연하게 처분하도록 협의의 중요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처분할 수 있었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미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는 처분 절차가 중단됐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이어 이날도 의사단체들에 대화를 촉구했다.

전병왕 실장은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계 대표성을 두고는 “의협 비대위를 통해 전공의도,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참여해서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다면 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억지로(대화창구) 구성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각각 세 배, 1.5배로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강원도에 사과 재배지를 2000ha(헥타르·1만㎡) 조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한동훈 “지금은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지금은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당진 등 지원유세에서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 누가 탈당을 해야 되느냐,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놔두고 서로에게 핑계 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희만 믿고 계시는 국민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다. 그러면서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는다”며 “우리가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철심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가던 것 기억 안 나냐”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한미일 공조 복원,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을 생각해달라”라고도 호소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尹대통령, 전공의 만나 직접 얘기 듣고 싶어한다”

###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

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과대학교수협의회(전교협)

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손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향해 윤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 당사자들이 만나 의정 갈등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지켜지는 소중한 권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